

公共料金引上과物價展望

韓國經濟人協會 裴 翰 慶

1. 擴大財政과 公共料金引上
2. 公共料金引上의 性格
3. 物價展望

一. 擴大財政과 公共料金引上

韓國經濟는 1961年以來 지나친 成長政策으로 인플레이션과 外換危機에 依한 試行錯誤的 試探을 받더니 1965年과 1966年에 걸쳐서는 「現實化政策」과 「跳躍의 豫算」으로 또다시 激浪 속에 휘몰리지않을까 憂慮된다.

지난해 5月3日에 換率을 倍로 올리고 올해 10月1日을 期하여 利子率을 大引上하였으며 66年度 豫算에는 電氣料金, 鐵道料金, 그리고 遞信料金等 公共料金を 最高 300%에서 最下 20%의 線으로 引上키로 함으로써 所謂 「現實化政策」은 일단 完了된것으로 하고 있다.

換率을 引上하여 輸入抑制과 輸出振興을 꾀한다고 하였지만 輸入原資材 값이 하루아침에 倍나 올라 肥料를 爲始하여 一般消費物價를 上昇시켜 一般國民의 消費를 加一層 壓迫하는 한편 겨우 겨우 採算을 맞추던 中小生産企業을 苦境에 몰아 넣게했고 끝내는 政府管理企業體의 한결같은 料金引上의 口實이 되어 独占管理價格이 先導하는 새로운 弊端의 인플레이션을 誘發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편 高利의 私價를 金融機關에 吸收시켜 資金需給의 正常化를 期하겠다고 斷行한 金利引上은 私價市場은 요동도 하지않고 오히려 銀行, 私賣할것없는 一般的인 金利水準만 높이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이것은 勿論 政府管理企業體의 主資金源인 財政資金의 金利는 從前대로 이긴 하지만 一般金融資金貸出金上昇에 따른 一般民間

企業체가 提供하는 用役 또는 製品의 價格上昇을 招來하게 될것임으로 公共料金引上을 直接 間接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不健全企業을 整理하고 適正利潤線에서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시키며 아울러 韓國經濟全般을 現實的인 水準에서 正常化시키겠다는 「現實化政策」은 國家独占事業인 政府管理企業체의 加一層独占利潤追求의 制度的 契機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公共料金引上은 66年の 擴大財政과 같은 關聯을 가지고 있다. 總規模 1,249億원으로 짜여진 66年度 總規模豫算은 國民總生産에 占하는 比率이 現年度의 14.6%보다 2.9포인트가 增加되어 17.5%로 늘어났고 또한 担稅率이 11.5%나 높아져 있다. 그리하여 結果的으로 豫算規模를 한해에 38.9%나 膨脹시켜 놓은 것이다. 이처럼 膨大된 豫算도 表面上으로는 均衡되게 짜여져있고 特別히 新年度 各特別會計事業이 採算性과 自給度提高라는 原則에 立脚하여 自体收入增加에 依한 投資財源調達을 計上하고 있으며 이는 公共料金引上을 前提로 하고 있다.

66年度豫算案에 올라있는 各種公共料金の 引上內容은 別表와 같다.

첫째 來年初부터 (1966年4月1日부터 實施豫定) 25%引上實施하기로 하고있는 電氣料金引上은 實은 지난해 韓電이 送配電施設과 群山火力發電所建設을 爲해 A I D에서 1,990萬弗의 借款을 導入할때 그 附帶條件으로 되어 있던 75%引上約束을 解除(既50%引上)와 來년에 걸쳐 履行하는 것이지만 表面上으로는 長期 電源開發을 爲한 投資財源 調達을 그理由로 하고 있다. 即 韓電은 向後 10年間の 電力需要增加率을 年12.1%로 보고 이의 電力供給을 爲한 電力開發所要資金을 年間 百億원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66年度에는 所要資金 98億원을 自体資金 22億원 借款 23億 國庫補助 5億원으로 充當하고 不足額 48億원을 電氣料金 25%引上으로 33億원 電車料金 100%引上으로 4億원 그外 財政資金

< 公共料金引上案 >

区 分	種 類	引 上 前 料 金	引 上 後 料 金	引 上 比 率	引 上 時 期
逡信料金	郵便 1 種書状(普通)	4원	7원	75%	66.1.1 부터
	2 種葉書	2	4	100	"
	3 種新聞	0.4	0.6	50	"
	4 種盲人用書籍	0.2	0.3	50	"
	5 種農産物種子	1	1.5	50	"
	소포(40KG까지)	30	60	100	"
	登記料金	6	13	120	"
	電報 市内電報基本料金	12	25	107	65.11.1
	市外 " "	25	50	100	"
	電話 電話度数料(通話料)	2	3	50	"
	自動電話基本料金	83	300	260	"
	電話架設費 7級地(新規電話架設費)	15,790	47,100	200	10.1
	6級自動	20,500	31,500	56	"
	6級共電	10,500	21,000	100	"
	5級自動	7,000	21,000	200	"
5級共電	7,000	14,000	100	"	
電氣料金	從 量 燈	9.21	未 調 整	25%	66.4.1 (豫定)
	街 路 燈	5.12			
	動 力	3.92			
	農 業 用	2.34			
	一 般 定 額 燈	12.06			

借入 事業調整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다음 各種通信料金の 引上理由는 事業費充當 庁舎補修, 通信施設擴張 對外借款의 償還等を 그 理由로 내세우고 있지만 郵便料金 66%에서 電話 200%까지의 引上으로 增大될 歲入增加는 約52億원에 達할것으로 計上하면서 이中에서 24億원을 一般會計에 轉入시키기로 되어 있다.

끝으로 올해 이미 旅客運賃 35% 貨物運賃 15%를 引上한바 있는 鐵道料金を 貨物運賃을 다시 來年 7月을 期하여 20%引上키로 되어 있다. 이는 産業線建設과 鐵道改良을 爲한 財源調達을 그 引上理由로 내 세우고 있다.

以上 來年부터 實施될 公共料金引上內容을 살펴볼때 從來의 그것과는 다른 세가지 特徵을 發見할 수 있다.

① 過去의 公共料金引上の 唯一한 理由는 企業體의 赤字補填이었는데 反하여 이번에는 所謂 投資 또는 事業擴大를 口實으로 하여 積極的으로 收益增大를 企圖하고 있다는點

② 政府管理企業體와 各特別會計의 獨立採算制를 強力히 내 세우는 政府가 新年度에는 公共料金引上으로 特別會計에서 一般會計의 歲入調達을 公公然히 들고 나오고 있다는點

③ 끝으로 經濟安定을 爲한 年間 物價抑制線을 10%로 잡고 있는 政府가 그의 公共料金引上率은 最低 物價抑制線의 3倍以上으로 引上하려고 하는 政策의 自家撞着現象을 露呈하고 있는 點의 셋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特徵的現象이 곧 이번 公共料金引上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二. 公共料金引上의 性格

이 법의 公共料金引上은 所謂 現實化무드에 便乘하고 있다.

政府가 내 세우는 現實化란 一言으로 要約하여 一連의 價格水準을 強制的으로 引上시킴으로서 一般國民과 農業, 中小企業의 加一增의 犧牲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政府는 此際에 政府管理企業체의 料金を 引上함에 있어 表面上 지난해 5月の 換率現實化以後 올해 9月現在로 全体都売物價는 7.7%밖에 上昇하지 않았으므로 經濟가 安定되었으니 公共料金を 引上하여도 인플레이惡化는 없을 것이라고 斷定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 投資收益率을 最大限으로 높혀 보자는 것이다. 政府管理企業체는 國家의 保障으로 市場을 恣意的으로 支配할 수 있는 強力한 独占的位置에 있으므로 取益增大를 實現하기 爲해선 價格引上이 가장 쉬운 方法이다. 더우기 이 投資取益의 保障을 재촉하는 在來에 없던 要因으로 電氣, 鐵道, 通信等에 外國으로 부터 巨額의 長期借入金이 들어오므로서 이에 對한 元利金を 繼續償還하기 爲해서도 料金引上은 斷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만큼 이 법의 公共料金引上은 그 國民經濟에 作用하는 性格이 過去와는 전혀 다른面을 나타내기 始作하고 있다.

韓國과 같이 經濟全体가 所要 需要超過型인플레이構造下에 있는 經濟에서 公共料金引上은 곧장 一般物價의 騰貴를 誘發하고 이는 또 必然的으로 公共料金引上의 原因을 造成한다. 이러한 構造의 經濟에서 餘他物價를 最大限 制壓하는 作用을 하여야 할 政府管理企業체의 管理價格群이 이제는 逆으로 物價上昇을 先導하는 位置로 轉位하였으니 短期的인든 長期的인든 間에 韓國經濟의 展望은 새로

은 局面의 信号를 던지고 있다고 보겠다.

解放後 여태까지의 韓國經濟는 그 生産性에 있어서나 交換條件에 있어 取奪 一方의 農業의 犧牲下에서 主로 商業部門을 中心으로 한 所謂 民間工業部門의 一方的인 受惠 乃至는 競争에 依하여 畸型的으로 發達해 왔지만 今後에 있어서는 政府의 保護와 外國資本이라는 엄청난 好條件을 具備한 政府管理企業체가 現實化라는 이름으로 民間企業과 싸우는(?)局面이 展開될것으로 展望된다.

다음 이범 公共料金引는은 一般會計歲入調達源으로 發展하고 있다고 앞에서 指摘하였다.

이現象은 달리 表現하면 韓國財政이 어느限界에 到達하였음으로 公益事業을 그 社會 經濟的厚生性에서 떠나 國家事業의 經濟的合理性을 내세워 公共料金を 反對給付가 아닌 一方給付인 租稅의性格으로 變形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는 우선 總規模를 急激히 膨脹시켜 놓은 66年度 豫算이 援助의 減少로 말미암아 國內財源依存度가 크게 竊에 따라 租稅收入의 增收가 限界點에 到達한데서 緣유 되었다.

이처럼 政府의 財政과 國家企業의 限界가 明確히 区分되기는 커녕 오히려 歲入增收의 手段으로 國家企業이 直接 國民經濟에 登場하는 理論的原則을 論하기 앞서 僮言하면 政府全體가 資本主義的 企業으로 變하기 始作하는 始初가 아닐지 憂慮된다.

政府가 營爲하는 公益事業은 完全한 獨立採算制가 이루어 지고 그 價格基準은 限界費用價格이어야 하며 그는 어디까지나 受益者負擔原則에 따른 反對給付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때 公益事業으로서의 國民經濟的存立意義가 있다. 이와 같은 原則이 무너지고 그것이 所謂 赤字經營으로 一般財政에 負擔을 준다거나 逆으로 政府財

政을 爲한 歲入增收機構로 化할때는 國民을 犧牲시키는 口實밖에는 못하는 것이다. 이들 公益事業이 國家独占利潤을 享受할려고 劃策할때는 이미 公益事業으로서의 性格을 完全히 이탈하고 ㅁ는 것이다.

政府가 引上코져 하는 通信料金は 企業뿐만 아니라 全國民의 日常生活의 消費支出과 直接的으로 聯關되어 있다.

具體적으로 보아 이번 通信關係料金引上案中에 市外電報基本料금이 現行 25원에서 50원으로 100%引上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구급위 ㅁㅁ로 한장 치는데 農村女子勞動의 하루 賃金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리고 至急 市外電話 1通話 料금이 ㅁㅁ 한가마價格과 같게 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에서 보아 所謂 強制貯蓄이라는 美名下的 公共料金引上에 依한 財政收入增大企圖는 곧 바로 政府가 全國民을 相對로 하여 独占의 企業行爲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餘他 民間企業에 對한 不當한 独占利潤을 노리는 行爲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公共料金引上에 있어 指摘되어야 할 問題는 그 引上率策定原則이 政府의 全体物價政策方向과의 矛盾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또한 그 引上率 自体가 주먹 구구식이라는 ㅁ이다.

앞에서도 指摘한바와 같이 政府는 新年度의 物價를 10%騰貴線에서 抑制하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여기에 고은 企業活動이나 消費物價에 直接的으로 反映되기 마련인 電氣 鐵道 通信等の 料金を 最少限 30%에서 200%線으로 引上시켜 놓았으니 都大体 이와같은 物價政策方向은 어떻게 表現해야 할지 막연 하다. 政府는 이에 對하여 現任의 公共料金水準이 所謂 餘他 現實價格水準에 比하여 너무나 ㅁ고 또한 生産原價에서 차지하는 比重이나 直接 消費生活에 주는 影響은 極히 작다고 그 理由를 提示하고 있다. 이

와 같은 政府의 辨明은 韓國의 인플레이構造와 그 性格을 度外視한 너무나 平面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物價構造는 需要供給 均衡 不均衡인 價格 파라메타에 의하여 循環의는 構造는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先導價格群의 上昇에 잇달은 上同一方의인 乘數的인 方向으로 인플레이가 激化되므로 物的基盤이 되어 있고 流通構造가 独占的으로 歪曲化되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卽 設사 電力費가 生産原價에 차지하는 比重이 몇 %다 하여 그만큼 價格이 上昇하도록 企業經營이 科學化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生産原價에 影響을 주기 보다는 韓國의 物價는 流通過程에서 순식담처럼 乘數的으로 上昇하게 되어 있고 價格파라메타가 없는 우리나라 流通過程은 곧 心理的인 物價上昇要因을 機械的으로 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諸外國에서는 想像할 수도 없는 引上率의 策定은 韓國의 政府管理企業체가 얼마나 수직구구식으로 經營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斷的으로 表示하고 있다. 이를 보면 總生産費를 生産量으로 算術平均하여 單價를 算出하는 그러한 式이다. 여기에다 外資導入에 의한 投資事業에 있어 人事管理 資材管理 生産管理가 無秩序하고 科學性이 欠如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費用單價는 諸外國의 同一事業의 倍를 凌駕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徹底한 原價分析없는 價格策定에다 投資收益까지 捻出하고자 하는 計算이 加勢함으로 말미암아 그 料率策定은 可謂 殺人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正常的인 料金引上을 爲해서도 政府管理企業체의 經營合理化를 要請하지 않을 수 없다.

三. 物價展望 (表面上安定下の 인플레이의 深化)

新年度の 公共料金引上이 物價에 作用할 局面은 셋으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는 政府管理企業체가 料金引上으로 積極的인 収益增大를 꾀하고 있으므로 民間企業의 生産者價格과의 競争的狀態에서 先導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電氣料金引上이 一般生産業체에 코스트 푸쉬로서 作用하게 될 것은 確實하지만 이는 餘他 國營企業체의 料金引上도 부채질 할 것이다. 石炭이 그러하고 製鐵 製鍊 그리고 造船 紙-비스部門 까지도 循環的으로 作用할 것이며 여기에 鐵道料금이 直接的으로 加勢할 것이고 通信料금이 引上됨으로 一般經營費上昇이 壓迫할 것이다. 이렇게 管理價格群이 相互作用으로 그 引上壓力을 政府當局에 누르면서 先導群化하면 우선 民間企業이 적어도 採算을 맞추기 爲해서는 어떠한 手段을 써서라도 그 價格引上을 期하게 될 것이다.

勿論 政府는 新年의 全體的 物價安定을 爲하여 最大限의 施策을 講究할 것이다. 卽 穀價의 最大限의 抑制 一般賃金上昇의 凍結로 나타날 것이며 民間企業製品의 價格統制가 부수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와같이 表面上 都売物價의 安定이 이룩되게 되다면 韓國의 物價構造는 加一層 畸型的으로 歪曲될 것이며 인플레이는 陰性的 構造的으로 深化될 것이다.

다음 局面은 都売物價에 비해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이 急激해 질 것이 豫想된다.

電力 鐵道 通信 등의 料金引上은 生産에도 作用할 것이지만 直接的으로 家計支出을 壓迫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따라 農村所得은 말

할것도 없고 都市中小層의 生計費支出에 있어 傾斜比率이 높아질 것이고 全体的으로 로-렌스曲線은 加速的으로 그 배가 볼러질 것이다. 事態가 이렇게 發展하면 副食物을 為始한 生必工業製品에 需要가 集中될것이므로 이들 消費者物價가 公共料金과 아울러 全体物價를 先導하는 現象이 일어날것이 展望된다. 이와같은 事態는 올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新年엔 財政인플레이가 다시 韓國의 인플레이를 深化시키지 않을까 憂慮된다.

新年度 豫算上의 總財政投融資規模는 452億 원으로 이는 올해 보다 36.6%나 大幅增大되어 있다. 그리고 一次産業部門과 三次産業部門에 全体的 約 73%가 配定되어 있다. 한편 一般經費가 30.3% 國防費가 33.7% 씩 各各 增加되고 있다.

여기서 볼때 新年度 豫算은 비록 投融資規模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物價의 供給을 뒷받침 하지 못할 投融資가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點 여기에다 純粹히 一方的 消費支出인 一般經費와 國防費의 大幅增加는 單純한 貨幣的有勳需要의 膨脹을 招來할 展望이 보인다. 이와같은 需要가 앞에서 본 畸型的인 流通構造로 劣化되어 가고 또한 公務員을 為始한 俸給生活者의 生必品消費로 集中될때 陰性的인 人플레이構造는 加速的으로 深化하게 될것이다.

公共料金引上을 中心으로 하여 当面한 經濟와 그 短期展望을 試圖해 볼때 韓國經濟는 또다시 所謂 現實化라는 이름 아테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政府는 66年을 跳躍의 해라고 一方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로스토우」는 跳躍의 한 指標를 投資率이 5%에서 10%에로 上昇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果然 財政投融資를 擴大豫算으로 늘이고

赤字補填에서 一躍 積極的인 投資收益確保로 向하여 公共料金を 引上 하여 政府企業의 投資를 늘림으로서 投資率이 數字上으로 늘어날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跳躍段階에 있어 投資率의 增加는 國民經濟의 基盤이 「自動化」가 可能해 졌을때 結果的으로 나타나는 投資率의 上昇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租稅增稅의 限界點에서 独占地位의 最大限發揮에 依하여 一時的으로 投資를 끌어 올려 놓아 본댔자 그 投資는 消化 되기 以前에 經濟基盤 自体를 뒤 흔들고 말 것이며 結果的으로 남는것은 인플레이의 激化 그리고 나아가서는 콘월스曲線을 加一層 밀므로 치지게 하는 結果만 招來하고 말 것이다.